

< 8월 2일 수련회 선생님의 수련회 전체 광고 >

‘시원한 산과 물로 뇌치료 마음치료 그리고 혼과 영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2013년 수련회 기대 많이 되시죠? 최종적으로 오늘 수련회 방향에 대해서 오늘 광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전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뿐이고 딱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수련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의 방향에 맞추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몸연단입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이 몸을 연단해야 뇌도 동시에 풀어지면서 굳어진 뇌가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먹고 행하려고 해도 이 몸이 약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국기봉에 갔다와!” 하셨어요. “국기봉에 갔다 오면 큰 선물을 줄게.” 그런데 국기봉에 가려고 해도 마음은 정말 먹었습니다. “국기봉에 갔다와서 큰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런데 평소에 몸이 연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마음먹은 대로 국기봉까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도 국기봉까지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 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1000미터도 뛰지 않은 사람들이 국기봉까지 한 번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몸이 연단되지 않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행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해도, 마음을 먹어도 행하려면 몸이 따라주고 뇌가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뇌가 따라주려면 몸이 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뇌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있기 때문에 몸이 행해 주면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뇌는 연단하고 단련시키면서 바꾸지 않는다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2천미터씩 뛰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에 사는 우리들도 몸이 연단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싶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깐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단련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굳어져 있는 뇌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련회 때는 산과 물로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고, 뇌를 치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순서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의 하이라이트, 수련회 최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산행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월명동에서 산행 많이 해보셨죠? 산책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 산행은 다른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겠죠.

“정말 몸을 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내 굳어진 뇌를 풀어 보겠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내 몸 연단하는 첫 시작이다. 끝까지 가겠다.”

“나는 감람산까지.”

“나는 국기봉까지.”

“나는 그런데 안돼. 나는 평소에 단련이 안 되어 있어서 동그레산을 10번씩 왔다갔다 하겠어.”

하여튼 여러분의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자기가 정한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동그레산 10바퀴 도는 것보다는 적어도 감람산까지 갔다 오는 것이 낫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산행 곳곳에는 선생님이 주신 잠언 150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친필 잠언이 있고, 선생님께서 쓰신 잠언 중에 인쇄되어 나온 잠언들도 있습니다.

이 150개의 잠언은 수련회 주제에 따른 잠언으로서 여러분이 산행을 할 때 더욱 더 결심하게 만들고, 더 가게 만들어 주고 더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산행할 때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요. 곳곳에 배치

된 선생님의 잠언을 보면서 가장 좋은 잠언, 그리고 ‘나의 인생에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잠언 하나를 외우면 됩니다. 이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잠언에는 스티커도 한 번 붙여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뿐만 아니라 10개가 좋다고 하면, 그러면 10개를 외우고 내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취지 이 모든 취지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고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들어야만 왜 몸단련을 해야 하는지, 뇌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이 수련회 말씀은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반에 사람들이 50%만 모여도 무조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8월은 요즘 너무 태양이 뜨겁죠? 오후 12시가 지나가면 여러분 태양 아래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도 걱정되구요. 그리고 가장 뇌가 총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후 12시가 되기 전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2시만 되도 다 존다고. 그래서 이번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산행을 목적있게 완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시작하고, 오전 9시 반에 말씀을 시작해서 11시 반에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시간이 늦으면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시간에 출발해서 차에서 기도하고 조금 쉰 다음에 정확하게 8시에 모두 다 월명동에 집합을 해주셔서 9시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하게 늦게 귀가하고 하는 것보다 빨리 일찍 출발해서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8시까지 월명동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말씀으로 수련회 방향을 정확하게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산행 전에 입소식을 할 겁니다. 입소식은 성자 주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받아주시고, 그 말씀의 대언은 정범석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입소식은 20분 넘지 않습니다. 20분에서 30분 간에 입소식을 마치고, 오후 12시부터 산행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식사는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산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후 6시까지 산에서 물에서 여러분의 몸을 단련하고 뇌를 치료하고 선생님의 귀한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 오는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각자 월명파크 호수에 입수하겠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인원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각에 따라서 천명씩 10분씩 입수하고, 10분 후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목적은 여러분의 더운 몸을 풀고 땀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구요. 호수에 들어갈 때는 선크림 화장 꼭 지우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에 젖은 면티나 수건으로 짹 씻어주시거나 옆에 물이 있으니깐요. 깨끗이 씻고 월명호수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원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산행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캠퍼스 *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까지는 제가 산행 그리고 퇴소식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먼저 할 거니까요. 모두 다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젖은 채로 바로 월명호수에 들어갔다가 젖은 채로 오후 6시에 정확하게 월명동 잔디밭에서 퇴소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는 20분 정도 간단한 예술제, 그리고 간단한 화동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선생님께서 성자 주님과 함께 저를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다 들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젖은 채로 퇴소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말씀은 나중에 시티엔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따라 질서있게 차질 없게 월명동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리고 새시대적인 멋진 의식을 가지고 수련회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